

효영신부님의 복음 퀴즈~!!!

★ 성령의 기가지 은사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 연결해 보세요!

- **곧셈**
 - 하느님의 계시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은사
- **슬기**
 -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지키도록 용기를 주는 은사
- **두려워함**
 -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과 연관된 사람들이나 사물을 존중하게 해주는 은사
- **통달**
 - 하느님의 뜻대로 판단하게 하고 구원이 필요한 일에 이끌리게 하는 은사
- **효경**
 - 하느님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은사
- **지식**
 -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은사
- **의견**
 -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은사



†. 찬미예수님~!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저는 원동성당에 있는 김효영 미카엘 신부님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길을 가다가 무섭게 생긴 아저씨나 불량해 보이는 오빠나 형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면 기분이 어떨까요? 맞아요! 무섭고 겁이나요.
도망가고 싶어져요. (지금 "저는 아니에요~!" 라고 외치는 흥분한 친구들도 있다는 걸 잘 아니까 우선 계속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런데 마침 저 멀리서 아빠나 엄마 또는 신부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맞아요. 엄청 반가운 목소리로 부르면서 달려오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마음은 편안해질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도 아마 우리 친구들처럼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물**을 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인 **성령강림대축일**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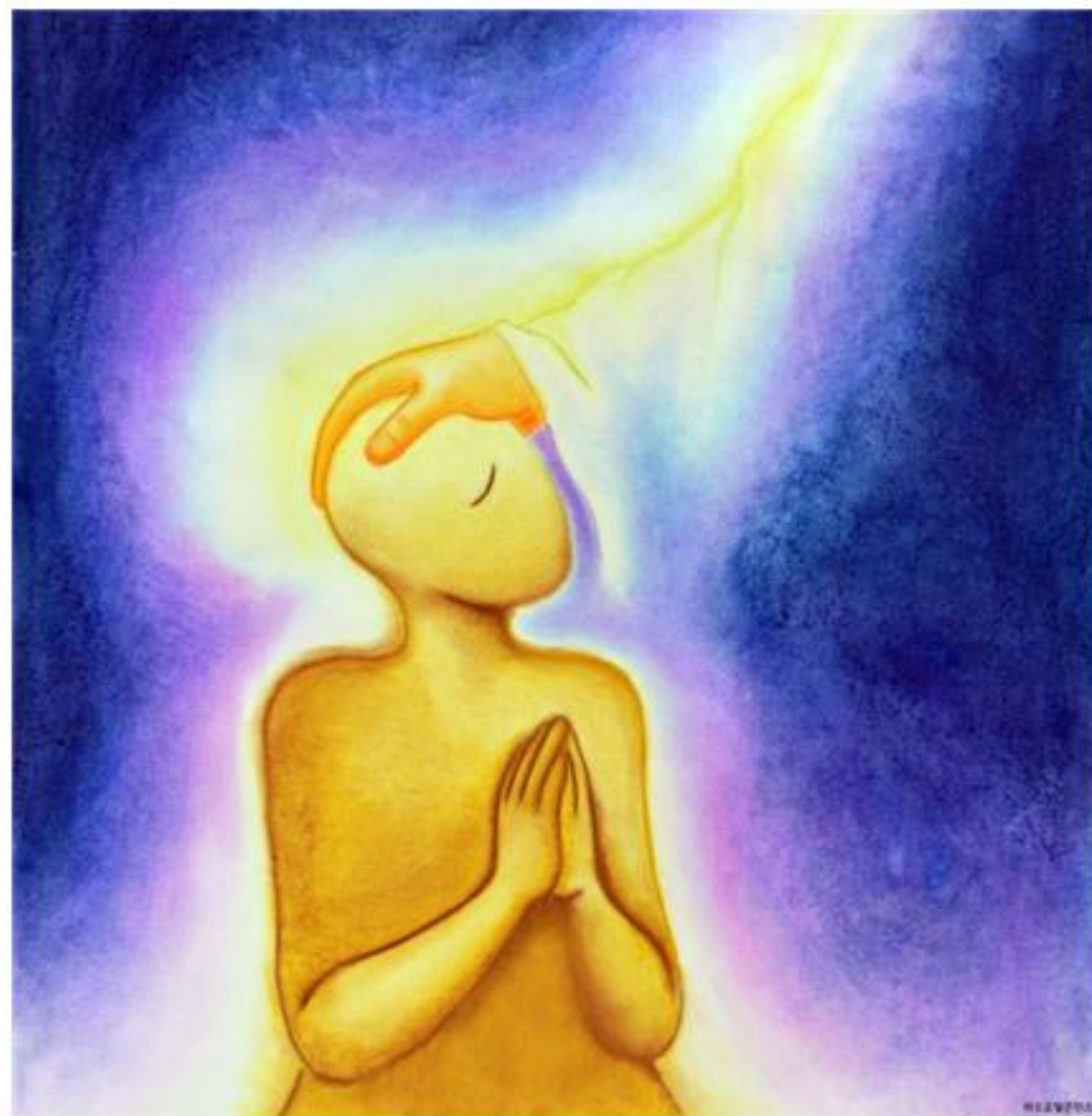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 선물 받고 싶나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을 주셨답니다.
비록 그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있어요.

자, 그럼 성령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야기 하거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또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 등 예수님의 친구로서 착한 일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성당에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미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맞나요? 그래요.
신부님도 우리 친구들 안에 성령이 있다고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눈 감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실까 생각하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속속** 자랄 수 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을 빈-아라."
(요한 20, 22)



성당 학년

이름 **시리밍**


광원도 원주시 원일로28(인동) 천주교 원주교구청 청소년교육국
033)765-4228 e-mail: wjch-O2@hanmail.net

1독서  **여행**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5,12-16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¹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²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³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⁴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⁵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⁶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⁷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 ⁸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⁹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¹⁰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¹¹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2독서  **여행**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3c-7.12-13

형제 여러분, ³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⁵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⁶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⁷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¹²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¹³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소님 저희생기 돌주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주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밀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  **여행**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23

¹⁹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²¹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²²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²³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